

사회

영국 교사 12명 광주방문 “교육비결 배우러 왔어요”

방과후 수업·1인 1악기 등 공동수업 하며 벤치마킹

“한국 교육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할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1등 도시인 광주의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세계적 교육선진 국가인 영국의 교육연구원 조·중등교사 등 12명이 4일 오후 ‘실력광주’의 교육행정장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영국교육협회(CFBT) 교육전략센터 조이 도날드슨(여·49) 단장 등은 6박 7일 일정으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수업참관, 공동수업 등을 하며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배우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초등 보육교실, 화상콜 센터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의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인재 찾기’ 등을 수행하기도 한 ‘CFBT’는 세계 54개국 교원에 교육시스템을 연구·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을 사전 방문한 ‘CFBT’ 연구원 리안 마티아스(여·30)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리안씨는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광주의 교육현장을 둘러본

결과 배울점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국의 교육전문가들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학생 위주의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의 단장을 맡은 조이 도날드슨씨는 “각종 국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중에서도 광주의 교육이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한 한국교육 중에

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광주의 교육행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배워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광주교육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원격화상수업, 학교재능교육 U-러닝 프로젝트, 영어수업개선, 사교육비 절감, 청렴도 향상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선진국가인 영국교육단체에서 광주의 교육을 배우러 왔다는 것은 우리(광주)의 교육시스템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입국한 영국 교육협회 연구원과 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누가 더 빠를까? 광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중외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전통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릴레이 경주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078) 김장동



수십억대 조대병원 장례식장 7억 매물로?

2억 가계약 소문...광주·전남 장례업계 ‘술렁’

조대병원 “서비스 제공 목적...임대 계획 없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이 부동산 산에 7, 8억원짜리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장례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문이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은 이지역 최대 장례시설로서 임대로 전환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례업자들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A업자가 2억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다는 설까지 무성할 상태다.

이 때문에 조선대·병원 교수와 직원들은 장례식장 임대 여부를

문은 전화를 받고 있다.

조선대 장례식장은 임대 운영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97년 서비스 제도 차원에서 건립, 직영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저렴한 장례비 등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계획은 고사하고 검토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대 이사회 구성을 놓고 대학과 옛 경영진의 갈등이 첨예했던 지난 1월월부터 임대 소문이 일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소문이 커지고 다양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이후, 일부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놓고 장례업자들과 사전 거래를 진행하고 있거나, 허위로 임대를 약속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이사회 중 일부가 임대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병원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윤 창출 대신 서비스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장례비와 최신 시설로 인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임대전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수술 비관 60대 음독 자살

지난 3일 오전 6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사는 신모(여·68)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극약을 먹고 신음하는 것을 딸(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신씨는 6개월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수술을 받은 뒤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왜 집안까지 안가” 택시기사 눈 찔러

○광주동부경찰은 4일 마다를 끝내 손가락으로 택시기사의 눈을 찔러 김모(45·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동구 산수동 마아파트 앞길에서 시비를 벌이다 오른손 검지로 택시기사 배모(48·북구 중흥동)씨의 왼쪽 눈을 한 차례 찔렀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추자 기사 배씨에게 “집 앞까지 가져다”며 승강기를 벌였는데, 경찰에서 “삿대질을 한다는 게 실수로 눈을 찔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放火

20대, 아버지 의도 어머니 눈물에 50대, 딸이 서운하게 하자 횡침에

포터 트럭 바다 추락 30대 운전자 숨져

광주북부경찰은 4일 아버지의 의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박모(2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옷에 불을 질러 집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버지의 잦은 의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이날 어머니가 거실에서 울고있는 모습을 보고 횡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에서 “딸이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양모(59)씨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노점에서 운동복을 파는 양씨는 이날 딸(15)에게 갖다 주려고 운동복 바지 치수를 물어봤다가 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을 내리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주민센터 인근 잔디밭에서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4일 오전 7시40분께 완도군 약산면 우무리 선착장에서 김모(34)씨가 타고 있던 2.5t 포터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김씨가 숨졌다. 김씨는 이날 일행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완도를 찾았으며, 사고 당시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선외기 보트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가 타고 있던 트럭이 1t 가량의 보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지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단속 편의 제공 ‘골프 접대’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장용기 판사는 4일 업무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김모(46·6급)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징형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접대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S사 대표 임모(51)씨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I사 대표 이

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정폐기물 단속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임씨에게 편의를 준 데 대한 사례로 12차례의 ‘공짜 골프’와 중국 상하이 골프 관광을 제공받는 등 3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씨로부터도 7차례의 ‘공짜 골프’와 베트남 하노이 골프 관광을 제공받는 등 28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형호기자 choice@kwangju.co.kr

7월 9일 공무원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합격하면 합격은 쉽고 할라집니다!**

→ 2009년 입사, 전남 1차(가사) 1차 합격 10명, 2차 합격 100명, 70% 합격률
→ 2009년 입사, 교육행정직 1차 1차 합격 10명, 2차 합격 100명, 70% 합격률
→ 2009년 입사, 전남 1차(가사) 1차 합격 10명, 2차 합격 100명

개강)매월 1회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나일귀반**
1회만 수업료 10만원 **검정직/소방직 전문** **국어:승태웅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 |

의사/약사가 되는길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유학원!!!

공공 최초·최대 합격률 유학·유수 합격률 학원·실제 합격률

PEET/ MEET/ DEET

1. 100% 합격률 2. 100% 합격률 3. 100% 합격률

MDP=의학전문학원

특별초빙·임명실 교수·임명실병원

1. 100% 합격률 2. 100% 합격률 3. 100% 합격률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gstol.co.kr

MDPass

합격학원

문의 233-455
mdpass.co.kr